

아주경제

2015.05.06

국제갤러리(주)

## ‘베니스 비엔날레’ 9일 개막 한국관 문경원·전준호 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현대미술축제인 ‘베니스 비엔날레’가 9일(현지시간) 공식 개막한다.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오쿠이 엔위저(51)는 56회째인 올해 행사의 주제를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로 제시했다.

지난 200년간 일어난 사회의 급진적 변화가 예술가들에게 새롭고 매혹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왔으며 예술과 예술가들이 ‘현재의 물질(또는 사물)의 상태(Current State of Things)’와 맺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를 위해 이 같은 주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국제전(본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136명 중에는 그림을 거꾸로 거는 것으로 유명한 1938년생 독일화가 게오르그 바젤리츠 같은 인물도 있지만 89명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작가들이다. 한국에서는 6년 만에 김아영·남화연·임흥순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관 커미셔너는 이숙경이 맡고 문경원·전준호 작가가 참여한다.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이 승인한 병행 전시로 국제갤러리가 후원하는 단색화전이 열리고, 이와는 별개로 박병춘 작가의 ‘채집된 풍경’전이 카 포스카리 대학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등 한국 작가들의 전시가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마련된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보통 6월께 개막했지만, 올해는 밀라노 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두 행사의 시너지를 위해 시기를 5월 초로 앞당겨 11월 22일까지 이어간다.